

# David deSilva 박사 , 신약의 문화 세계 , 세션 4, 히브리어 읽기, 후원과 상호주의에 조율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신약성서의 문화세계에 대해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입니다. 이번 세션은 네 번째 세션, 히브리서를 읽고 후원과 상호주의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후원, 우정, 상호주의의 문화적 배경에 관해 이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른바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놀랄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공동체의 후원자라는 관점에서, 물론 더 넓게는 세상 전체에 걸쳐 제시됩니다. 은혜의 언어가 단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울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히브리서 저자처럼 서신을 마무리하는 친숙한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소위 편지 전반에 걸쳐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 편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편지라기보다 설교와 정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중의 은혜와 평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기독교 유산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에게 합당한 웅장한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편지처럼 끝날 뿐이지만 대부분은 설교처럼 들립니다. 저자조차도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이 아닌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듣는 것을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편지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그것은 아들의 화신과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읽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도움의 샘으로 간주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여정에서 인내해야 할 것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6장 4-5절에 보면, 그들은 단번에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누린 것을 읽습니다. 다가올 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저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청중들 앞에 제시합니다.

4장 1절에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 11장 16절에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 13장 14절에 영원한 성에 대한 약속,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약속, 9:24에서 천국에 들어가심은 보이는 땅과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신의 영역,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을 대신하여 선구자로서 들어가신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따라 영원한 영역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더 낮고 지속적인 소유에 대한 약속을 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은인이나 실제 개인 후원자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사실 제자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중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회상합니다.

아들은 또한 제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6~18절에서는 그분을 제자들을 돕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돕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아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 직전에 우리는 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으로 인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셨으니 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은 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큰 은사를 성취하고 청중들에게 큰 은사를 주신 은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재입니다. 그는 대부분 신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는 동정심 많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4장 14-16절을 보면, “ 그 후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중개인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를 다리를 놓는 사람, 즉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직면하는 투쟁과 도전의 종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누구보다 더 나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고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자는 예수께서 항상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의 중재와 중개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7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간이 심판과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입니다. 격노.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장들을 새롭게 읽어본다면,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 다리 건설자이신 예수,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 생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의무에 동등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신자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해야 할 동기를 찾도록 돕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 현재 그들을 둘러싼 도전에 대해. 우리가 세 번째 강의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고대 독자들은 적절한 응답에 대한 저자의 요구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 예가 있지만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려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행동을 촉구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유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함을 표현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합시다.

사실 그리스에는 에코맨이 있어요 kharen , Let us have Grace는 나무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문맥에서 우리가 큰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khares는 호의를 베푸는 것의 반대면을 의미해야 하며, 감사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를 표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방식으로 봉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10장 19절 이하에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신 역사상 전례 없는 이 특권을 가졌으니 무엇을 보답하든지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고백한 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 그래서 저자는 인식 가능한 상호주의 스크립트를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이웃이 두려워 목공소에 표류하는 것은 죄이며, 그 가치 때문에 굳게 붙잡자. 우리의 고백과 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이제 저자는 예수님과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의 상황은 베드로전서에서 직면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입증하신 중재자의 중개를 누린 청중의 경험에 대해 말한 모든 내용은 시청자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청중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설교 자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복음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경험한 결과로 회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장 3절부터 4절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림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의 사명에 대한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에서 5까지의 내용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바울 팀의 일원에게서 나온 것이며 바울의 사명을 받은 개종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경험을 살피본다는 또 다른 종류의 연결이거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과거의 삶과 개종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틀을 준비하고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위기로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사회화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우리는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원한 심판 등 그들의 기본 훈련의 일부였던 주제에 대한 일종의 교리문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비기독교인 이웃의 거부와 적대감을 극심하게 경험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자가 이러한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깨달음을 얻은 후 고난과의 힘겨운 싸움을 견딘 이전의 시절을 기억하라 .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비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동료였습니다. 당신은 갇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있는 줄 알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공개적으로 치욕과 수치심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 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자라나는 기독교인 집단 주변의 더 큰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 가운데서 비정상적인 지식과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식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 일탈

집단에 합류하는 데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 전체에 반영된 제시된 도전은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몇몇 구성원들이 이미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이 문화의 소외되고 가치 없는 구성원, 즉 이 도시의 거주자로서 현재를 계속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표류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회심할 때 들었던 메시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신 메시지를 무시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체적인 성경 본문, 예를 들어 2장 1절과 2장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의 불신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2-13절. 저자는 4장 1절에서 약속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것과 같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4:12의 신뢰 실패. 다시, 설교가 끝날 무렵 저자는 12장 3절과 12장 15절에서 피곤해지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얻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경고 구절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서, 서로에 대한 끈기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대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강조는 인내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헌신이 흔들리는 데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처음 기독교 운동에 합류했을 때 시작했던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인가? 그들이 경험한 것 같은 가장 치열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들 교회나 이 특정 회중의 일부 개인들은 상보다는 대가를 더 잘 인식하게 되면서 기독교 공동체와의 공개적인 교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24 , 25 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이웃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철수가 좋은 것으로 보일 것이며, 그들의 이웃들이 재빠르게 단언했을 회복을 향한 단계로 보일 것입니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러한 헌신의 흔들림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 직접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극소수의 활동에서 경고 신호를 보고, 공동체가 활력이 부족하다는 경고 신호를 봅니다. 소수를 쫓아가거나 소수가 탈북하여 호스트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전략, 그의 목회 전략은 청자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얻은 유익과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와 헌신을 일깨우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관대하면서도 강력한 후원자에게 배은망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 감사의 응답과 엄청난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표시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저자는 이 설교 전반에 걸쳐 청중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과 아직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후원자에게 계속해서 영예를 돌릴 것을 요청하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합니다. .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되었으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소망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따라서 이 구절에서 저자는 청중들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자신이 그 후원자와 관련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신성한 후원자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연결을 부끄러워하는 데에는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웃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도시와 지역 사회에서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값비싼 선물은 값비싼 감사와 값비싼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주변 사회가 당신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굴복하지 않았을 때 가졌던 담대함을 기억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정도 이렇습니다: 당신 자신은 이웃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표적이 된 기독교인들과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등에 불스아이를 그렸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당신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아마도 어떤 종류의 그럴듯한 혐의로 투옥되었을 때 고대 세계에서는 법률 체계가 집단적 증오에 의해 잘 조작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불에 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도움, 지원, 음식, 동행, 격려를 받아 등에도 넓은 목표를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담대함은 큰 상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그리스어로 파루시아( parousia )로 당신의 마음을 말하고, 당신의 신념을 굳게 붙잡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파루시아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미덕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인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정에 맞서 저항이나 대안적 의견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한 용감한 사람들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저자는 당신의 행동을 통해, 동료 기독교인과의 관계를 통해, 주변의 비기독교인의 폭정에 겁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 그러한 종류의 파루시아를 계속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15년 설교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곧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여기에서 그는 한 종류의 응답, 즉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해보자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감사와 연결의 고백은 기독교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객 집단과 함께 공개적으로 계속 모이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비록 그 충성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네카가 이것을 상호주의 정신의 일부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비록 그것이 나를 사회적 수치심이나 소외의 장소로 몰아넣을지라도 나의 후원자나 친구에게 진실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받은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에게로 가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명예를 바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아들에게 우리가 빛진 이 감사의 보답에는 무엇이 포함되니까? 우리도 그에게 똑같은 일을 해야 할 빛을 지고 있으며, 그에게 바로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진 충성심의 값비싼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 이제 우리가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네트워크와 도시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의 일부입니다. 지불하기에 너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에게 빛진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상호 스크립트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3~4 절의 다른 구절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의 이 같은 적개심을 참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와의 싸움에서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니다.

근본적인 논리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인내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거기에 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때문에 극심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를 위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겠쵸. 그것은 당신의 후원자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비참하게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니다. 저자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촉구합니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지금 배반한다면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시거나 붙잡을 가치가 없습니니다. 나는 오히려 비기독교인 이웃과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미래에 약속된 유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고 요청합니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니다. “형제자매들아 삼가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드러나는 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유익의 약속된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니다.

설교 전반에 걸쳐 이러한 명령은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속해서 평화를 보여주며,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니다. 예를 들어, 1023년에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희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뢰하는 자들의 무리에 속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믿음에 관한 유명한 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고, 또한 본질적으로 영원한 칭찬과 명성, 영예를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한동안 낮은 신분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완벽하게 거주했으며 그곳에서 확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학대에 동참하기 위해 바로의 궁을 떠난 모세. 그 유명한 말, 즉 제가 자랄 때 히브리서의 유일한 구절, 음, 제가 외운 히브리서의 두 구절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유명한 구절조차도 신뢰와 신뢰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어제 약속하신 것을 내일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웅변가이자 정치가이자 망명 후 철학자였던 디오 크리소스톰(Dio Chrysostom)은 아마도 서기 120년경에 사망했을 것으로 기억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람이 증명할 것인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진술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제와 오늘도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과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구절은 신성한 후원자이자 중개자,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청중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봉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계속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열등한 고객 및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후원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실제로 호의에 현물로 보답할 수는 없지만 고객은 후원자를 위해 주어진 선물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존재해야 할 상호 호의의 정신, 이런 종류의 관계에 존재해야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정신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리스-로마인이건, 유대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나 신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 결코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모든 예배와 봉사를 드려야 할 의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방금 찬양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요구한 데 이어 바로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과 같이 이러한 종류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의 필요에 따라 서로 드리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으로, 그분의 관대함에 대한 일종의 작은 보답으로 서로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매나 형제에게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가 기뻐하는 제사로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성도를 섬기는 일과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지금과 같이 간과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행동을 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호 지원과 지원은 하나님 께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투자할 때, 특히 히브리서의 청중이 직면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한 보답으로 여기실 것이며 따라서 자신을 보여 준 고객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고귀한 사람이 되어 선물의 가치를 아는 법을 알아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24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받았으니 레위 사람 어떤 제사장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서로 생각하자 사랑과 선행을 많이 베풀게 하소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전례 없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시는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대로 주기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사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매나 형제가 자신의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제 히브리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유지하고, 섬기는 온 마음과 감사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반면에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배은망덕에 대해 경고하면서 막대기도 꽤 잘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히브리서(히브리서 3:7-4:11, 6:4-8, 10:26-31)에서는 실제로 감사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배은망덕이라는 주제와 배은망덕의 위험, 배은망덕의 추악함을 사용합니다. ,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7-4.11부터 저자는 청중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사를 계속 소중히 여기고, 계속 충성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 신뢰하고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연이어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인상적인 구원의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들이 추격하는 적들에게 바다를 무너뜨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고, 선물을 아낌없이 베풀고, 적시에 도움을 준 뒤에 적시에 도움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세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은 약속의 땅의 문턱에 이르렀고,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보내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찰병들의 대다수 보고에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 이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과 잘 훈련되고 중무장한 군인들이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한 후원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서 우리는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글쎄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모욕을 받은 은인의 반응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몇 번이나 보여 주셨고, 그들에 대한 선의의 표시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를 믿을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대항하여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의 반응, 즉 모욕을 당한 은인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 유일한 두 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세대 전체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은혜에서 그 세대 전체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다음 저자는 수신인과 분명한 연결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약속의 땅, 영원한 본토, 영원히 있는 성으로 인도하리라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세대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문턱에서 우리의 은인에게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당이 실제로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자는 이 편지에서 적어도 두 번 이상 그토록 강력한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지 말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과 그것을 소멸하는 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보통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설교의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의로 범할 수 있는 오래된 죄일 뿐입니다.

그는 마음 속에 매우 구체적인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두 구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이는 일을 그만두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긍정 부족으로 인해, 이웃이 그들에게 안겨준 수치심 때문에 더 좋게 표현하자면, 세상의 수용과 우정이 약속과 우정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자는 이것이 고의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 당신은 단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선물과 약속이 지키는 데 드는 비용만큼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저항에 계속해서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피를 보통 사람의 피처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푼 신성한 영에 대한 보복 모욕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제로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일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등을 돌리면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당신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 고난을 견디는 영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나를 위해 흘린 피가 내가 그를 위해 피를 흘릴 가치도 없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팔을 뻗쳐 당신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신 방식이 당신이 모욕을 갚기 위해 기꺼이 뺨을 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서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이 문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이르게 하는데, 이는 제가 말했듯이 아마도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유명한 경고 구절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집단에서는 신학적 폭풍우의 중심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곧 다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우 간단한 논증 과정을 따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하기를 원하는 행동 방침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기본 원리를 뒤로 하고 우리 여행의 종착점까지 나아가도록 합시다. 광야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행이 끝나기 전에 문턱에 멈췄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외면하거나, 교회를 버리기보다는 헌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반대 주장을 통해 그러한 행동 촉구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결정적으로 빛을 받은 자들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권세를 좇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공중에게 옥을 돌리게 하므로 배교하는 자니라. 이제 우리는 저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는 그러한 구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가상의 개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질문인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할게. 히브리서 저자는 설교의 어느 시점에서든 구원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와는 달리 히브리서 저자는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1장 14절 또는 아마도 1장 13절에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입니다. 이어서 9장 말미에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단번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양한 성경 저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자신의 용어로 제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 :4-5에 나오는 개인들을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말하는 것조차 히브리서 저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멈춰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오히려 그분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을 계속해서 받는 수혜자로 제시하십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는 응답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제 생각엔 영어가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거의 대표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분사절 뒤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계속 받는 청중으로 묘사하는 분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은사가 아니라,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성령과 여러분이 가진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서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여, 사실상 이웃 사람들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말함으로써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고 나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반응은 얼마나 추악한가. 그래서 그는 6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행의 끝까지 달려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은인에게 공개적인 불명예를 가져오고 그의 값비싼 선물에 대해 공개적인 경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은사를 받으시고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충성과 신뢰를 계속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세네카나 디오크리토스의 글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저자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정은 자신의 은인을 존경하는 사람은 모두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인을 모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점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선물과 틀림없는 은총을 누린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까? 그 후 그는 이웃의 우정이 하나님의 우정보다 낫다는 사람들처럼 자기 아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호의에 대한 보답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 저자는 6장, 7장에서 8장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행동 촉구를 뒷받침하고 유추, 농업의 주장을 통해 반대로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계속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식물을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구절들에는 구약성서의 분명한 공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주와 관련된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생각나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원형적인 범법 이후에 땅은 그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언어의 맥락에서 축복과 저주의 반대는 물론 실제로 신명기 전체를 상기시키지만, 특히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농업 언어가 처음 듣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공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호성의 사회적 맥락과의 공명. 농업은 흔히 잘 주고 잘 갚는 것에 비유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Seneca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선물이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적절한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에서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을 만한 자를 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낡고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아무런 차별 없이 혜택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습니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농부조차도 자신의 씨앗을 모래에 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줄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주는 사람에게 잠재적인 받는 사람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단지 몇 가지 좋은 징후를 찾아 위험을 감수하라고 촉구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신자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연적인 진실이 보여주는 길을 따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씨를 뿌린다. 누가 씨 뿌리는 자에게 수확을 약속할 것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계속해서 기부하라고 촉구하는 맥락에서 그는 농부가 일을 마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뿌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씨앗을 넣어서.

농작물이 수확량을 얻게 되는 것은 많은 주의를 기울인 후에야 가능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는 경작으로 장려되지 않는 것은 결코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혜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의사 시설의 문장과 같은 유대인 텍스트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다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포도원 노래에 이르면 우리는 이러한 역동성이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심는 자의 불평은 포도나무를 심고 다듬고 울타리를 쌓고 망대를 쌓고 온갖 노력을 다한 후에 포도 대신에 신 포도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쳤고, 이 모든 관심을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나요? 정의 대신 외침이 들렸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실제로 히브리서 6, 4절부터 6절까지의 일종의 재진술을 봅니다. 안타깝지만 이 수혜자들은 연이은 축복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그들 위에 거듭거듭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작하시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채소를 맺으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어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뿐이라면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저주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다음 문단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어 그들이 그들의 신성한 후원자에 대한 충성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열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구절의 논증은 먼저 저자가 논증 과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뢰와 충성,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끝까지 계속 달려갑시다. 6:4-8,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웃, 즉 비기독교인 이웃에게 여러분이 옳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정은 내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진노를 기대하는 것과 바꾸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문단 6:9-12에서는 청중이 좋은 땅을 반영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10장, 32장부터 34장까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대상이 된 기독교인들에게 격려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머리에 위험을 부추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객이 직면하는 질문은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수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 또는 명예? 배은망덕하거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비옥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데 적합한 수혜자로서 앞으로 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 나쁜 토양이 되어 불쾌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반응을 낳게 될까요? 자, 저는 이 구절이 일종의 신학적 논쟁의 온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영원한 안전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텍스트와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논평에서 나는 이것이 질문의 초점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은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그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없는 행위를 식별합니까? 반면에, 영원한 안전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이 본문이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의 교리에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에게 구원을 잃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구원 언어 사용을 받아들여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한 용어에 대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화적 배경에 대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 질문 모두 틀렸다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 은혜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번째 강의에서 내용을 이해하셨을 수도 있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스리는 상충되는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네카는 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역설을 거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주는 사람은 주어진 금액을 기록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하나, 받는 사람은 금액보다 더 많은 빚을 졌다고 느낍니다. 혜택의 경우 이는 관련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주는 사람은 그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즉시 잊어야 합니다. 상대방인 수신자는 받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혜택을 주는 사람은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으로서 저는 절대로 '그래, 내가 누구누구를 도와줬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관대함을 증언하기 위해 말하게 하십시오. 그의 책 후반부에서 그는 받는 사람이 반품할 기회를 찾았지만 주는 사람의 엄청난 우월한 자원 때문에 아직 그 기회를 찾지 못한 경우, 주는 사람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고객이 너무 조심해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미 반환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수령인은 자신이 그것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하고, 받는 사람은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환경에서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정하는 것은 추악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글썄, 나는 이 혜택을 실제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쨌든 그것을 기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자마자 당신은 관계의 전체적인 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 보안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할 때, 아시다시피, 하나님처럼 관대하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만큼 관대하게 베푸시는 분이 도로 가져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준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1세기의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 즉 1세기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인 나는 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추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세기의 호의를 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1세기의 호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 즉 잘 반응하고 우아하고 친절하게 반응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제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측면입니다. 이 구절을 사용하여 '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는 실제로 주는 사람이 항상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는 사람의 관대함이 고객이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더 클 수 있다고 가정하는 다른 방식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는 기부자에게 이런 조언, 즉 신을 모방하라는 조언을 한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덕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지만, 젠장, 신들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는 사람의 덕, 미안해요, 받는 사람의 덕까지 생각 없이 주는 거죠. 그들의 기부는 너무나 완벽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의를 받는 사람은 결코 감사에 보답하지 말라고 배우지만, 배은망덕하면 미래의 모든 호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도록 배웁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기대하더라도 우리가 줄 혜택이 몇 가지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네카는 신들이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들을 본받아 봅시다. 우리의 은사 중 많은 것이 헛되이 주어졌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시다.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그 사람에게도 두 번째 이익을 줄 것이며, 좋은 농부가 보살핌과 경작으로 땅의 척박함을 극복하는 것처럼 내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익을 주고 손해를 보는 것은 고귀한 정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귀한 정신의 증거는 잃어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이 대화의 양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경우에 어떤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존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관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특정 수익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둘 다 이 본문의 1세기 청중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교리는 받는 사람이 그러한 놀라운 은사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추측하도록 가르친다는 점에서 도를 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거나 구원을 잃는다는 생각은 주는 사람이 하지 않을 일을 가정하고 많은 경우 그에 따라 나쁜 조언을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신약 저자들의 세계에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는 이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답해야 합니다.

호의는 감사와 감사의 응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신약성경의 선언과 그리스도인이 깨지지 않는 결속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약성서의 지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언을 함께 묶는 열쇠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의 춤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지만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중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회복,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사랑과 이 놀라운 관대함의 표현은 실제로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은혜를 잘 받는 제자가 될 제자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의 나의 삶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 원동력은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에 걸맞은 명예, 그분의 사랑에 걸맞은 충성, 그분의 선물에 걸맞은 봉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결코 동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점입니다. 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토록 놀랍고 신성한 사랑이 내 생명과 영혼과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바울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의 길에 결코 들어 가지 않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글썬요, 그것은 고린도후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바울 신학과 제자도의 길에서 핵심적인 포석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러한 반응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제쳐두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어떻게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로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특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의는 생명을 대신할 가치가 있습니다.